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I

KU논술우수자전형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시험시간 100분입니다.
- 나. 문제 답안의 분량은 각 문제에서 요구한 글자 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 답안작성 시에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답안작성 및 수정 시에는 개인이 지참한 흑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여, [라]의 섬에서 허생이 행한 '시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부가 없는 문명도 없다. 문명의 발전과 다른 인간적인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역사학자들은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라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첫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경제적인 발달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하천 덕분에 농업과 교류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은 지역이나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중앙 집권화'된 정치 조직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사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치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문명의 요인이 된다. 우선 사치는 혁신과 교류의 증대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을 통해 사회의 권력과 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사치는 타락과 낭비로 인해 퇴조의 길을 걷기도 한다. 철학자나 사상가, 도덕주의자들이 사치를 격렬하게 배격하고, 위정자들이 '사치 단속령'이라는 법률로 사치를 제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모순성은 사치가 문명의 요인인 동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사치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치가 문명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처음에는 그 안에 내재된 창조성을 통해서, 나중에는 교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제작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적절한 사치야말로 경제와 지성, 예술, 도덕면에서 모든 문명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장 카스타레드, <사치와 문명>,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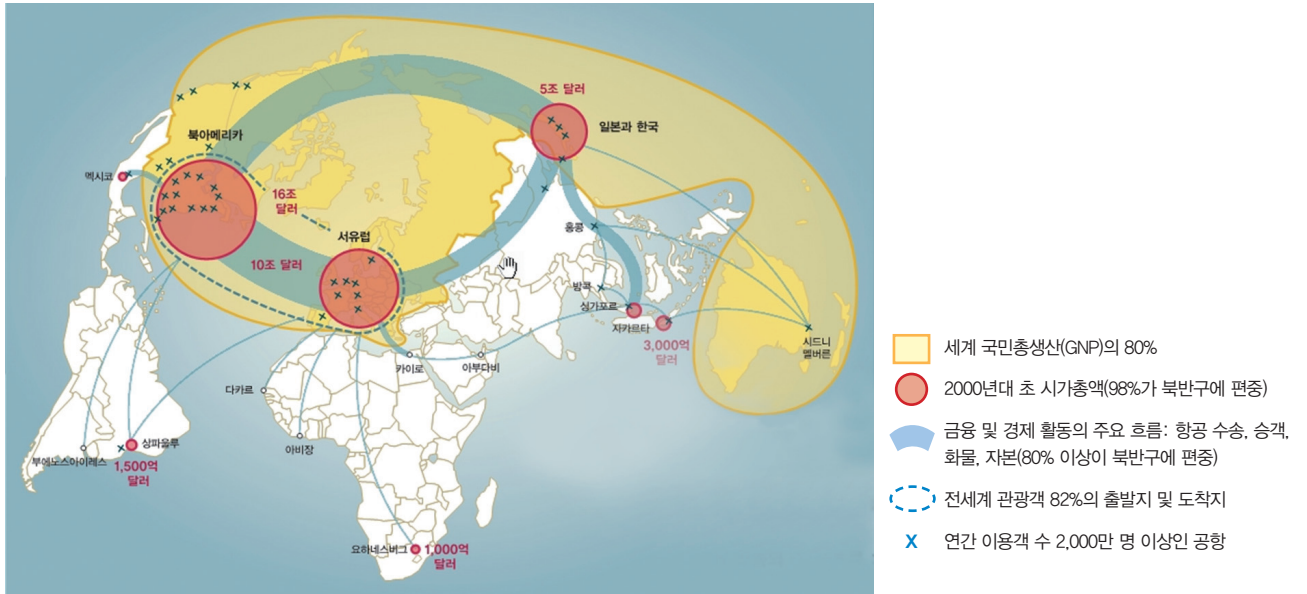
[나] 사라져버린 많은 문명 중에서, 이스터 섬의 문명은 오랫동안 신비에 싸여 있었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이스터 섬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이 섬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 (중략) 폴리네시아 인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식량, 충분한 건축 재료 등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섬을 발견하여 정착하였다. 그들은 번창하였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몇 세기 후 그들은 돌로 단을 쌓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돌 제단과 석상은 커졌고, 석상은 10톤이나 나가는 붉은 돌로 만든 왕관을 쓰기 시작했다. 각 씨족들은 자신들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석상을 세웠을 것이다.

결국, 석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숲이 재생산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서 숲이 급속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밭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기 위해, 카누를 만들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해, 석상을 옮기기 위해 나무를 베었다. 숲이 사라져 감에 따라 석상을 운반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는 밧줄의 재료와 목재도 사라져 갔다. 카누의 재료인 나무들이 멸종하면서 고래도 식탁에서 사라졌다. 숲이 파괴되어 흙이 비바람에 침식되고, 햇볕에 말라 척박하게 되었으므로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었다. 남아 있는 작은 석상들의 훌쭉한 뺨과 앙상한 갈비뼈는 당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잉여 식량이 사라지면서, 그때까지 정교한 분업 사회를 이끌어 오던 추장, 관료, 성직자들이 힘을 잃었다. 중앙 집권적 정부는 각 지방의 혼란과 함께 무너지고, 전사들이 세습되던 추장들의 권한을 빼앗겼다. 1700년을 전후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피해 동굴 생활을 시작하였다. 1770년 전후에는 서로 경쟁 부족의 석상을 무너뜨려 머리 부분을 떼어 냈으며 1864년에 이르러 드디어 마지막 석상이 내팽개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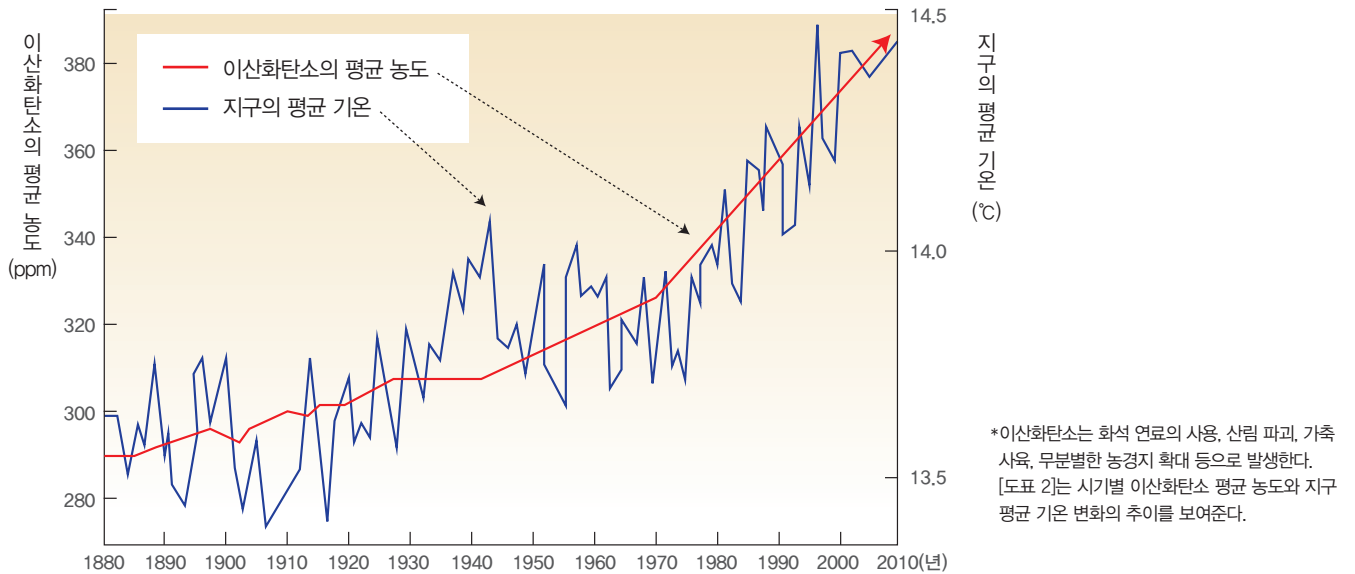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스터 섬의 몰락>, 고등학교 국어II

[다] [도표 1]



-고등학교 사회

[도표 2]



-고등학교 사회

[라]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죄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만간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중략)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냡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냡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지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饑足)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냡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냡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냡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良民)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냡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느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흠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일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로 가져가서 되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 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냡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엔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은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려다.”하고 돈 오십만 냡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냡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허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모두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지.”했다. (중략)

이튿날, 변 씨는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냡을 버리고 십만 냡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웃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박지원, 〈허생전〉, 고등학교 국어Ⅱ